

ATA+대전광역시립미술관

'산책, 건축과 미술' 전 개최

ATA(아시아건축연구실)와 대전시립미술관은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전의 원도심에 있는 대전지방보훈청 별관(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)에서 '산책, 건축과 미술' 전시회를 개최한다.

'산책, 건축과 미술' 전은 오랫동안 별개로 인식되어 온 건축과 미술이 새롭게 만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심의 근대 문화재 건물에서 열리는 이색적인 전시회로서 국내 최초로 도심에 있는 국가기관의 건물 전관을 임대하여 개최된다. 이 같은 '열린미술관'은 문화 수요자인 대중에게 직접 찾아가는 프로젝트로서 소극적인 전시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미술문화의 인프라 구축 및 미술문화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고정된 전시장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의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학생, 어린이들이 미술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종의 아웃리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.

'산책, 건축과 미술' 전이 열리는 대전지방보훈청 별관은 대전 원도심의 중심에 있는 근대건축물로서 건축적 가치가 인정되어 등록문화재 100호로 지정되어 있다.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 건립된 이 건물은 1999년부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사용되었으나 1999년 말 그 사무실이 대전시 선화동의 옛 검찰청사로 옮겨진 후 현재까지 6년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다.

• 문의 : ATA아시아건축연구실

042-629-8052



대전지방보훈청 별관